

다호리유적에 보이는 중국계 요소

- 토기를 중심으로 -

정 인 성*

I. 머리말

II. 다호리유적의 중국계 요소 개관

III. 동북아시아에서 灰陶의 확산

1. 灰陶란?
2. 타날문단경호의 확산
3. 요동지역의 양상
4. 樂浪土器樣式의 문제

IV. 낙랑 타날문단경호의 특징

V. 다호리 토기의 와질토기화

1. 외반구연옹
2. 조합우각형과수부 장경호
3. 주머니호
4. 완형토기
5. 양이부 광구호
6. 양이부 장동호
7. 타날문단경호

VI. 맺음말

1. 瓦質土器란?
2. 瓦質土器의 기원

참고 문헌

* 영남대학교

I. 머리말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자에게 주어진 과제는 다호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중국계 요소를 정리하는 것이다. 다호리유적에서 발견된 중국계 요소에 대해서는 이 시기의 대외교섭관계를 다룬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진 바 있기 때문에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다.

지금까지의 관련 연구는 樂浪郡을 중심에 둔 교섭관계를 다루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낙랑군을 漢, 中國이라는 용어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어찌되었거나 다호리 집단을 포함한 영남지역과 주변의 여러 東夷社會가 漢帝國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되는 계기를 낙랑군의 설치로 보는 것은 동양고고학에서는 비교적 오래된 설명 틀이다. 즉 영남지역도 낙랑(漢)세력과 다양한 형태의 접촉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사회분화와 집단간 통합이 이루어지고 결국 이는 한반도 남부에서 고대국가가 발생하는 기틀이 되었다고 본다.

이를 고고학이 다루는 실물자료의 수준으로 내려서 생각하면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로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많은 물질문화의 변동을 낙랑군과의 관련으로 설명하는 것과 통한다. 이는 이 시기에 대한 고고학적 연구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전제로 이 시기 물질자료에서 확인되는 변화의 상한이 낙랑군의 설치를 거슬러 올라갈 수 없게 묶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즉 단조철기의 등장, 각종 중국 청동기의 유입에 따른 세형동검 문화의 쇠퇴, 와질토기의 등장 등은 낙랑군의 설치가 절대적인 상한연대가 되고, 여기에 더하여 이입과정의 시간을 상정하는 소위 ‘傾斜編年’이 적용되어 왔다.

토기로 한정해서 말하자면 점토대토기에 이은 와질토기의 등장은 영남지역의 집단이 낙랑군과 접촉하면서 낙랑토기의 영향을 받은 결과로 설명되었다. 그런 맥락에서 다호리 1호에서 출토된 성운문경과 오수진, 조양동 38호에서 출토된 이체자명대문경과 같은 중국계 유물은 영남지역에서 원삼국시대의 시작이 낙랑군과 관련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가장 핵심적인 절대연대 추정자료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발표자는 최근 일련의 연구를 통해서 밝힌 바처럼(鄭仁盛 2008) 낙동강유역권에서 확인되는 토기를 포함한 이 시기 여러 문화변동의 시작은 낙랑군 설치가 아니라 그 이전으로 소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Ⅱ. 다호리유적의 중국계 요소 개관

선행연구를 참고로 다호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중국계 요소를 지목하면 1호묘에서 출토된 성운문경과 오수전, 소동탁과 削刀, 붓 등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곡봉형 대구와 원형 동기, 유리구슬, 盤 등은 중국과의 관련을 상정하기에 충분한 유물이다. 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출토되는 각종 철기류는 물론이고 요갱을 가지는 목관묘 그 자체도 중국에서 발원한 문화요소로 이해된다.

뿐만 아니라 다호리에서 출토되는 세형동검과 검집, 청동 부속구 등도 그 형태에서 낙랑군과 관련이 짐작되는 자료이나 이는 중국계 요소가 아니다. 낙랑문화를 중국문화와 동일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Ⅲ. 동북아시아에서 灰陶의 확산

본 발표에서는 다호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여러 무문토기들의 灰陶化, 즉 와질토기화를 중국계 토기요소의 확산과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고 그 내용을 살피려고 한다.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되는 와질토기의 발생을 낙랑토기와 관련시켜 주장하는 연구자가 많았지만 戰國時代 土器의 영향이라는 반론도 있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전국토기 영향설을 주장하는 논자들도 영남지역으로의 이입시기를 낙랑군 설치 후로 보기 때문에 두 주장은 결국 기원에 대한 무게중심이 다를 뿐이지 樂浪郡과 교섭을 직접계기로 보는 데는 차이가 없다.

그런데 다호리유적에서 발견되는 각종 와질토기 중에서 중국 회도나 낙랑토기에서 그 형태적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타날문단경호에 국한된다. 즉, 와질토기의 등장을 樂浪 내지는 중국의 戰國土器에서 구하지만 실제로 비교되는 토기는 타날문단경호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호리는 물론 영남지역에서 와질토기의 성립 과정을 살피기 위해서는 전국시대 燕지역에서 시작된 타날문단경호의 확산과정을 거시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안된다.

발표자는 중국에서 발원한 타날문단경호가 東夷世界로 전해지면서 地域의 토기문화로 수용되어 발전하는 양상이 비교적 일찍 확인되는 곳은 요동지역과 한반도 서북지역, 그

리고 영남지역으로 한정된다고 본다. 반면 한강유역권과 영서·영동지역은 그보다 발생 시기가 늦다고 판단한다. 일본열도에도 낙랑군 설치 이전에 이미 灰陶의 이입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야요이토기를 대신하지 못하고 고분시대가 되어서야 스에키라는 형태로 구현된다. 부여나 읍루는 물론 초기 고구려 지역에도 戰國·前漢初에 灰陶의 이입이 부분적으로 확인되지만 이것이 지역 토기양식으로 발전한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1. 灰陶란?

토기를 분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소성방법을 기준으로 나누면 酸化焰燒成土器와 還元焰燒成土器로 대별된다. 전자는 소성과정에서 공기(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어 태토 속의 철분과 화학작용을 일으켜 붉은색을 띠는 것이 많고, 후자는 공기 공급이 차단되어 환원상태의 가마 속에서 토기가 구워지기 때문에 대개 회(흑)색을 띤다. 중국에서는 이를 紅陶와 灰陶로 구분하는데 이는 이미 신석기시대에 등장한 것으로 이해된다. 산둥지역의 대문구문화 만기가 되면 회도 제작에 이미 타날기법은 물론 수준 높은 녹로 기술도 채용된다.

2. 타날문단경호의 확산

그런데 灰陶文化가 東夷世界로 확산되는 것은 훨씬 나중의 일이다. 특히 특징적인 기종인 타날문단경호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戰國時代 후기가 되어서인데 아마도 『三國志』 위서 동이전 匈奴條에서 확인되는 燕將 秦開의 활약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록에는 진개가 고조선을 포함한 東胡勢力의 서변을 二千里나 후퇴시키고 그 공간에 상곡군, 어양군, 우북평군, 요동군, 요서군을 설치하였다 한다.

河北地域의 북부와 요서지역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고 믿어지는 이러한 정치 정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이 지역에서는 기원전 4세기 후반경이 되면 타날문토기를 비롯하여 燕式土器와 鑄造鐵器類가 확산된다. 河北의 북부는 물론 발해만에 면한 해안지역으로도 이들 토기의 확산이 확인된다. 뿐만 아니라 燕 長城이 지나는 赤峰附近에서도 燕의 특징적인 토기가 확산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燕式土器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뚜껑이 화려하게 장식된 부장용 토기

류이고, 다른 하나는 土城 등 실생활 유적에서 출토되는 각종 打捺文土器이다. 燕의 부장용 토기는 대부분 니질계 태토로 만들어진다. 생활유적에서 출토되는 토기에는 泥質系의 灰陶 외에도 석사립(활석중심)의 혼입이 두드러지는 붉은 기미의 토기류가 포함되는데 대부분이 타날기법으로 성형된다. 생활유적에서 많이 출토되는 타날문토기에는 원저단경호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다른 하나는 활석이 다량으로 혼입된 釜形土器인데 이 역시 타날기법으로 성형된다. 즉 전국시대 燕에서 동북지역으로 확산된 가장 대표적인 토기류는 니질계의 타날문단경호와 활석혼입계의 釜形土器라 할 수 있다.

燕下都和 燕長城의 내부에서 발견되는 타날문단경호는 정선된 태토에 회색 기미의 것이 압도적이지만 적갈색인 것도 부분적으로 확인된다. 대개 점토띠를 쌓아올리면서 승문 타날하지만 ‘형뜨기 기법’이 채용되기도 한다. 저부 원저화 공정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연부는 회전물손질로 조정된다.

3. 요동지역의 양상

한편 요동지역에서도 戰國末이 되면 타날문단경호와 釜形土器를 중심으로 하는 燕의 토기와 유사한 토기들이 산견된다. 요동반도의 선단부에 위치하는 목양성, 고려채, 대령둔토성들이 있고 영성자나 윤가촌유적에서도 관련 유물이 출토되었는데 이들은 일부 燕 토기들과 형태적 속성이 닮은 것이 있지만 기법상 다른 점도 인정된다. 다만 심양 주변의 정가와자 丘臺, 汎華유적 등에서는 전형적인 燕系 遺物이 확인되고, 요양지역까지 燕의 귀족묘가 발견되는 것을 보면 이 지역이 한 때 燕의 세력판도에 완전히 편입되었음을 알게 한다. 길림성의 二龍湖土城은 燕長城의 바깥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여기서도 전형적인 연 토기들이 발견된다. 즉, 초기 부여세력이 활약했던 지역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燕의 토기 문화와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다. 무순지역에서는 연화보유적이 유명하다. 이 유적에서는 다양한 주조철기와 명도전 등이 타날문단경호를 포함한 灰陶들과 같이 출토되었는데 이를 청천강유역에서 발견된 세죽리유적의 출토유물과 연결시켜 세죽리-연화보유형이라고 부른다. 세죽리-연화보유형은 요동지역과 한반도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공간에서 유행하던 점토대토기가 타날문토기를 중심으로 하는 燕式의 灰陶文化와 접촉한 결과물로 여겨진다.

이 지역의 타날문단경호는 정선된 점토로 성형되며 소성도는 영남지역의 후기와질토

기와 유사한 것이 많고 경질에 가까운 소성도 간혹 확인된다. 타날은 모두 승문타날이고 내박자는 무문이 대부분이다. 저부에서는 원저화 타날이 관찰되고 승문타날이 시문된 동체부에는 여러 조의 횡침선이 돌아가는 것이 특징인데 침선의 폭이 영남지역의 와질토기에 비해서 넓다.

4. 樂浪土器樣式의 문제

한편 한반도 서북지역을 중심으로 戰國時代 燕의 토기문화와 재지계 토기문화가 상호 작용하여 성립한 것이 ‘樂浪土器樣式’이다. 낙랑토기를 漢의 토기문화가 대동강유역에 그대로 이식된 것으로 생각하는 연구자가 많으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 발표자의 그간의 관찰경험으로 보건데 樂浪土器는 제작기술과 형태면에서 漢이 아니라 戰國 燕의 토기에서 그 기술적, 형태적 계보가 구해지는 기종이 많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樂浪土器의 각 형식은 燕 토기 그 자체는 아니며, 영향은 받았으며 독특한 자체 변화를 이룬 것으로 이해되는데 燕 土器와의 사이에 세죽리-연화보유형의 토기를 둘 수 있다.

IV. 낙랑 타날문단경호의 특징

여기서는 다호리유적은 물론 영남지역에서 전개된 와질토기화의 배경을 좀더 분명히 밝히기 위하여 낙랑토기의 특징을 살피기로 한다. 다만 樂浪土器의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지면을 통해서 밝힌 바 있으므로¹⁾ 여기서는 그 개요만 정리하기로 한다.

우선 樂浪土器는 태토의 종류에 따라 ‘泥質系土器’, ‘滑石混入系土器’, ‘石英混入系土器’로 구분된다. 니질계 태토로 만들어진 토기에는 단경호를 포함하여, 원통형토기, 시루, 고배, 완, 분형토기 등이 있는데 대부분이 일상생활용의 토기여서 분묘에 부장되는 것은 소수이다. 활석혼입계는 화분형토기와 鼎形토기가 대표적인데 모두 취사용토기이다. 이

1) 鄭仁盛, 2004a, 「樂浪土城의 「滑石混入系」土器와 그 年代」, 『百濟研究』 第40輯

———, 2004b, 「樂浪土城의 土器」, 『韓國古代史研究』34, 韓國古代史學會

———, 2006, 「복원실험을 통해 본 樂浪 盆形土器와 평기와의 제작기법」, 『韓國上古史學報』 第53號, 韓國上古史學會, pp.123-160

———, 2007, 「낙랑 「타날문단경호」 연구」, 『江原考古學報』 제 9호, 강원고고학회, pp.95-132

중 화분형토기만이 분묘에 부장된다. 그리고 석영이 다량 혼입된 일명 백색토기의 대부분은 저장용 용인데 분묘에도 부장된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낙랑토기 중에서 중국에서 기원하여 영남지역으로 연결되는 토기의 灰陶化를 설명하는데 유효한 것은 ‘니질계토기’類에 한정되며 그 중에서도 타날문 단경호에 불과하다. 낙동강유역권에서 타날문단경호를 제외한 나머지 와질토기들은 모두 이전의 무문토기에서 그 형태적 계보가 구해지는 것이다.

낙랑군의 타날문단경호는 모두 니질계 태토이며 소성도는 영남지역의 연구자들에게 익숙한 와질에 가까운 것이지만 일부 경질에 가까운 것도 있다. 물론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기와 견줄 정도의 소성도는 아니다. 樂浪土城에서 출토된 타날문단경호는 경부와 동체 상위에 타날이 없는 것(A식)과 구연부를 제외한 토기 전면에 승문이 관찰되는 것(B식)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거의 소형이다. B식은 저부에도 원저화 과정에서 생긴 타날이 확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²⁾.

낙랑의 초기 목관묘에서 출토되는 타날문단경호는 A식이 많지만, B식의 부장도 곧 뒤를 잇는다. A식은 점토띠쌓기한 다음 회전물손질로 구연부와 동체부를 조정하고, 회전판에서 토기를 분리시킨 후 저부에 원저화 타날을 가해서 성형을 마친다. 회전물손질로 구연부를 조정하기 이전 공정에서 타날이 이루어졌는지는 지금의 자료로는 검증할 수 없다. 다만 낙랑토성에서 출토되는 거의 모든 니질계토기가 크기를 불문하고 ‘1차 성형’에서 승문타날이 이루어진 사실을 참고하면 A식 단경호도 繩文打捺로 1차 성형을 한 다음 구연부 물손질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³⁾.

樂浪土城과 智塔里土城은 물론 낙랑고분에서 확인되는 단경호의 대부분은 B식인데 이 토기의 성형공정은 1·2차로 분명히 나누어진다. 1차 성형에서는 점토띠를 쌓아올리면서 승문타날을 가해서 원통형의 ‘基本形’을 만든다. 이 때 사용되는 내박자는 노끈을 감은 둥근 棒狀의 것인데 위·아래가 곧다. 이러한 내박자로 제작된 토기를 살펴보면 구연부의 안쪽에서 회전물손질흔의 아래에 횡방향의 노끈 압흔이 관찰되는데, 토기 제작실험에서도 이를 검증한 바 있다⁴⁾. 타날로 1차 성형한 토기는 우선 회전물손질로 구연의 형태를 조정한 다음, 사용되는 내박자를 소형 목제 내박자로 바꾸어서 胴體部를 두드려내는 2차

2) 鄭仁盛, 註1)의 前掲論文(2004b)

鄭仁盛, 註1)의 前掲論文(2007)

3) 鄭仁盛, 註1)의 前掲論文(2007)

4) 鄭仁盛, 註1)의 前掲論文(2007)

성형으로 공정을 옮긴다. 즉, 1차 성형 때는 노끈을 감은 棒狀의 내박자를 사용하는데 반하여 2차 성형에서는 만곡되는 동체 내면에서 운용이 용이한 목제 내박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낙랑 타날문단경호의 동체부 내면에는 목제 내박자의 나이테흔이 남는 것이 일반적이다. 동체를 부풀린 다음에는 어깨부위를 무문, 혹은 희미한 선문(평행)타날로 두드려서 無文樣帶를 만든다. 어깨부에 무문양대를 만든 다음에는 동체부에 횡침선을 돌리고 회전판에서 분리한다. 물론 회전판에서 토기를 분리할 때까지 토기의 저부는 평저이다. 토기의 분리에는 ‘실로떼기’가 채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 다음 공정으로 ‘저부원저화’ 타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흔적을 남기는 사례는 거의 없다. 그러나 회전판에서 분리한 다음 저부를 조정하지 않은 평저토기류에서는 대부분 ‘실로떼기’ 흔이 관찰되는 것을 보면 타날문단경호 역시 ‘실로떼기’로 회전판에서 분리했을 가능성이 높다. 분리한 토기는 뒤집어서 ‘원저화 타날’을 실시하는데 토기의 축을 기준으로 사방향 타날이 우세하다.

V. 다호리 토기의 와질토기화

여기서는 다호리유적 출토토기의 와질토기화를 살피고 이것이 낙랑토기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의 타날문단경호와 어떠한 관계가 설정되는지를 살피기로 한다.

다호리유적에서 확인되는 와질토기로는 주머니호, 조합우각형파수부장경호, 외반호, 파수부호, 장동호, 타날문단경호 등이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일하게 중국 灰陶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는 것은 타날문단경호이다.

1. 외반구연옹

외반구연옹은 초기철기시대의 점토대토기를 조형으로 한다. 저부 점토판을 먼저 만들고 테쌓기로 성형하는데 무문토기 단계에 이미 무문타날이 채용된다. 와질토기화의 방향은 저부 형태의 원저화와 구연의 외반이다. 물론 타날이 확인되는 자료도 있다 저부 원저화가 이루어진 뒤에도 석사립이 혼입되어 무문토기와 크게 다르지 않은 태토를 지닌 토기자료가 산견된다. 환원염 소성도 다른 기종에 비해 늦은 감이 있는데 이는 이 토기가 취사용 토기이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박순발은 이 토기가 낙랑 화분형토기의 영향으로 제작된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형뜨기’를 채용하는 화분형토기와는 크게 다른 제작기술이 채용된 토기이다. 오히려 요동반도에서 발견되는 燕式 토기의 영향을 받은 외반호와 유사성이 더 높다.

2. 조합우각형파수부 장경호

이 토기는 초기철기시대의 흑도장경호에서 파생된 기종이다. 무문토기 단계에는 평저굽에 테쌓기가 성형의 기본이다. 물론 타날이 채용되기도 한다. 기형이 정해진 다음에는 내외면을 정성껏 마연하여 정면한다. 이 토기의 와질토기화는 저부의 원저화, 태토의 정선화, 구연부 조정에 회전력 이용, 환원염 소성 등이다. 저부 원저화는 구연부에 대한 조정이 끝난 다음에 회전대에서 토기를 분리한 다음에 이루어진다. 와질토기화의 시작단계에서는 무문타날과 표면마연이 우세하지만, 오래지 않아 승문타날과 횡침선 시문이 추가된다.

3. 주머니호

원삼국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로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지만 초기철기시대의 점토대토기에서 파생된 기종이다. 아직도 주머니호 전체를 와질토기로 판단하는 연구자들이 있으나 이는 시정되어야 한다. 만약 주머니호의 발생을 와질토기의 시작으로 본다면 파수부 장경호의 조형인 흑도장경호도 와질토기로 보아야 하고 나가서는 점토대토기 전체를 와질토기로 판단해야 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주머니호는 형식변화의 방향이 뚜렷하기 때문에 원삼국시대 토기편년에 가장 유용한 기종 중의 하나이다. 무문토기 단계의 주머니호는 석사립이 다량 포함되고 저부는 굽형이며 산화염으로 소성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 단계에서 이미 제작대에서 떼어낸 저부를 문지르기 조정한 토기가 확인된다.

와질토기화가 진행되면 저부 원저화가 이루어지고 구연단이 외반하며 태토의 정선화가 이루어진다. 환원염으로 소성되고 무문타날과 마연으로 표면을 조정하여 마무리한다.

타날이 이루어졌음이 분명한데 내면에서 무문, 혹은 손으로 내박자를 대신한 사례도 발견된다. 저부 원저화는 물론 구연부에 대한 조정이 끝난 다음에 회전판에서 분리하고 이루어지는 것이다.

4. 완형토기

완형토기는 원삼국시대에 중국토기의 영향을 받아 새로이 등장한 것으로 이해되어 왔으나 최근 팔달동 등지에서 초기철기시대의 무문토기 완이 발견되었다. 무문토기 단계의 제법은 주머니호와 크게 다르지 않다. 와질토기화의 방향도 주머니호와 거의 일치한다. 와질토기화가 이루어진 완형토기의 제작기법과 관련하여 중요한 토기가 다호리 57호에서 출토되었다. 57호 완형토기의 저부에서는 약간의 회전이 인정되는 ‘실로떼기’ 흔이 관찰되어 주목된다. 와질토기화는 구연부까지 성형이 마무리되면 회전판에서 토기를 분리하여 저부를 2차적으로 조정하게 되는데 이 때 사용된 분리법이 ‘실로떼기’란 것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5. 양이부 광구호

양이부호 역시 초기철기시대를 거쳐 원삼국시대까지 사용된 기형이다. 초기철기시대의 양이부광구호는 태토에 석사립의 혼입이 많으며 성형에 무문타날이 채용된 경우가 있고 산화염으로 소성된다. 와질토기화는 다른 토기와 마찬가지로 저부 원저화와 태토의 정선화, 그리고 환원염 소성이 지켜진다. 와질토기화가 진행된 토기에서는 무문타날이 관찰되는 사례가 있는데, 다호리 31호에서 출토된 광구호에는 저부 원저화 과정에서 승문타날이 채용되고 이를 다시 지웠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와질토기화 과정에서 타날이 관찰되지 않는 토기들도 실제 성형과정에서 타날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음을 웅변하는 것이다.

6. 양이부 장동호

양이부 장동호 역시 초기철기시대에서 원삼국시대에 걸쳐 사용된 기종이다. 와질토기화가 진행되기 전의 토기는 석사립의 혼입이 현저하고 산화염으로 소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동체에 비해서 좁지만 평저의 굽을 가지고 구연부가 비교적 넓게 외반하지만 회전이 채용되어 이루어지는 마무리는 아니다.

이 토기의 와질토기화는 태토의 정선화(다른 와질토기 기종에 비해 사립함유량이 약간 높은 편임), 승문타날의 채용, 환원염 소성, 그리고 구연단의 조정이 끝난 다음에 토기를 뒤집어서 저부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이 토기는 저부의 원저화는 아니지만 토관처럼 성형하다 구연부 조정이 완료되면 이를 뒤집어서 테쌓기로 다시 긴 동체부를

쌓아올리다 ‘조이기’ 기법으로 저부를 막아서 마무리한다.

양이의 아래에서 定置 조정시의 ‘疑底部’가 관찰되고, 곡물을 달리하는 부위에서 타날의 방향이 상하 역전되는 현상이 관찰된다. 이 시기 토기의 와질토기화에서 구연부 조정이 끝난 다음 회전판에서 토기를 분리하여 2차적으로 저부를 조정하는 기술적 속성이 가지는 중요성을 말해주는 자료인데 이는 중국 회도의 성형법에서는 일반적인 것이다.

7. 타날문단경호

초기철기단계에는 없었던 기종으로 灰陶의 영향으로 새로 등장한 기형이다.

와질토기를 대표하는 기종 중의 하나이지만 주머니호나 조합형우각형파수부호와 같이 형식변화의 방향이 분명하지 않은 것이 특징이다. 다호리 64호 단계가 되어야 타날문단경호의 製法이 안정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호리유적에서 관찰한 타날문단경호는 대개 승문타날로 성형되었고 구연부의 조정에 약간의 회전이 채용되었으며 환원염으로 소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태토에는 의외로 석사립이 혼입된 것이 많아서 태토의 정선화와는 거리가 있다. 성형과정에서 사용된 내박자는 모두 무문이며 저부는 말각평저이거나 원저이다. 저부는 원저화 조정이 기본이지만 말각평저인 것도 있다. 와질토기화를 저부 원저화로 몰아서 설명하지 못하게 하는 요소인데 회전판에서 분리한 토기를 뒤집어서 승문타날로 2차조정하는 공정의 유무가 와질토기화의 기준이 될 수 있음을 말해주는 자료이다.

다호리 40호에서는 전면에서 타날흔이 발견되지 않는 단경호가 출토되었는데, 정선된 태토에 산화염소성이 느껴지는 토기이다. 타날이 없는 조합식우각형파수부호의 제작에 익숙한 공인이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VI. 맺음말

1. 瓦質土器란?

정선된 태토라는 것은 와질토기뿐만이 아니라 무문토기단계의 홍도나 초기철기시대의 흑도장경호에도 적용되는 속성이기 때문에 와질토기를 구분하는 절대 기준이라고 할 수

없다. 다호리나 팔달동을 위시한 여러 유적에서 출토된 많은 수의 초기 단계 와질토기를 관찰한 결과 석사립의 함유가 현저한 토기도 많기 때문이다. 물론 정형화된 와질토기는 무문토기에 비해 정선된 태토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타날의 도입만으로 와질토기를 구분하는 것도 실제와 맞지 않다. 그것은 점토대토기단계는 물론 송국리단계의 토기에서도 타날흔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와질토기화의 중요 속성으로 단순히 타날 성형에 주목하는 것은 옳지 않고, 이재현이 말하는 것처럼 繩文打捺의 도입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하며, 나아가 그것이 와질토기의 다른 속성과 복합적으로 나타나야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 물론 타날문단경호를 제외하고는 승문타날이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무문타날에 저부에 대한 2차 조정(원저화 작업이 중심)과 태토의 정선화, 환원염 소성이라는 속성이 동시에 확인될 때는 당연히 와질토기라고 해야 한다.

성형과정에서 회전대의 도입 여부도 이것만으로는 와질토기와 무문토기를 구분하는 절대기준이 되지 못한다. 초기 단계의 주머니호나 장경호, 단경호 등은 타날성형과 구연부의 조정을 위해 낮은 수준의 회전이 요구되는 토기이지 초기 와질토기론자들이 주장하던 것처럼 빠른 회전력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다.

환원염 소성도 무문토기와 와질토기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다. 그러나 대성동 소성유구의 사례에서 확인된 것처럼 동일한 가마에서 양자가 구워진다는 주장도 있다⁵⁾.

위에서 살핀 것처럼 토기 저부의 圓底化를 포함한 저부의 2차 조정 여부도 와질토기를 가르는 중요한 지표이다. 필자는 이 저부 원저화라는 것이 환원염 소성, (승문)타날과 함께 무문토기와 와질토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속성 중의 하나라고 판단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灰陶 製陶技術이 수용된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는 것처럼 무문토기는 홍도와 같은 일부 기종⁶⁾을 제외하고는 성형이 개시되면 토기가 거의 완성될 때까지 제작대 위에서 定置된 상태를 유지한다⁷⁾. 반면 중국의 灰陶는 성형이 끝나고 구연부에 대한 회전조정이 끝나면 토기를 작업대에서 분리하여 저부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구연부에 대한 회전조정의 여부는 홍도와 와질토기를 기법상 가르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2차 조정이 이루어지는 타날문토기인 경우 저부에 대한 타날조정이

5) 釜慶大學校博物館, 1998, 『金海大成洞燒成遺蹟』

6) 홍도의 경우도 저부가 원저지만 와질토기와 다른 점은 회전판 위에서 구연부의 조정이 이루어진 다음 회전판에서 분리하여 저부를 조정하는 공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7) ‘定置’라는 것은 성형 중에 저부 조정을 위해 토기를 제작대에서 분리한 다음 기울이거나 뒤집어서 타날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제작과정에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우세하고 평저토기인 경우에는 깎기로 마무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느 정도 회전 성형이 예상되는 토기의 저부가 원저화 공정과 같은 2차 조정을 거쳤는지의 여부와 환원염소성을 1차 기준으로 삼고, (승문)타날과 태토의 정선도 등을 2차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간 연구자마다 일치되지 않았던 와질토기의 개념과 발생시점에 대한 인식차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瓦質土器의 기원

다호리유적에서 출토된 와질토기를 관찰한 결과 낙랑토기보다는 전국계 灰陶에 더 가깝다는 것을 알았다. 물론 ‘戰國影響說’은 이미 선행연구가 있지만 발표자는 초기 와질토기가 중부지역에 정착되었다가 다시 낙동강 유역권으로 이입되었다는 선행 연구자들의 주장에 반대한다. 오히려 중국계 灰陶인 타날문단경호의 발생시기는 낙동강유역권이 중부지역보다 빨랐다고 판단한다⁸⁾.

그리고 구체적인 상한연대에 대한 언급은 보류하겠지만 낙동강유역권의 사람들이 최초로 중국계 灰陶에 노출되는 시기는 낙동강유역권이 요동반도와 한반도 서북지방은 물론 일본열도와 오키나와까지를 연결하는 국제교역망에 편입되는 기원전 3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물론 戰國系 灰陶의 형태와 기술적 전통을 가졌지만 현지에서 제작된 것으로 판단되는 토기가 출토된 예산리 3호를 기원전 3세기까지 소급시켜 보는 것은 아니다. 漢鏡이 출토된 다호리 1호나, 용전동, 조양동 38호 등에서 출토된 주머니호나 장경호를 예산리 3호의 그것과 형식학적으로 비교하건대 기원전 3세기 보다는 늦은 시기일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다.

조양동 5호 단계일 가능성이 있는 울산 달천유적의 5, 6호 수혈에서 출토된 타날문토기와 함께 구체적인 편년문제는 근거를 보충하여 별고에서 다루겠다.

다호리 40호와 팔달동 41호에서 출토된 산화염소성이면서 저부가 평저인 단경호는 그 製陶法이 무문토기에 기초하는 것이다. 즉 재지의 공인이 권역 내로 이입된 灰陶 短頸壺를 모방하여 만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낙동강유역권에서 초기 와질토기의 제작을 주도한 주체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8) 중도식 토기문화에 속하는 중부지역의 타날문토기는 최근에 조사된 가평 달전리나, 춘천 대성리 출토자료로 보건대 낙랑토기의 영향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또한 단경호에 승문타날이 본격적으로 채용된 후에도 태토에 굵은 모래가 섞이고 뚜렷한 형식변화의 방향성이 확인되지 않는 점, 또한 소성도가 고르지 못한 점 등을 참고하면 재지의 무문토기인이 타날과 환원염소성을 기본으로 하는 灰陶 技術을 습득해서 완성시키는 데는 제법 긴 시간이 걸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일부 늦은 단계의 주머니호와 공반되는 단경호에서는 낙랑 단경호의 특징인 어깨부 무문(혹은 평행)타날이 확인되는 예가 있다. 이는 낙동강유역권에서 타날문단경호가 완성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낙랑의 제도기술 역시 채용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中國鏡이 영남지역으로 이입되기 시작하는 것도 임당동 E-58호에서 출토된 재가공된 초엽문경으로 보아 낙랑군이 설치되기 전인 기원전 2세기대 前半으로 소급될 가능성이 높다.

참고 문헌

□ 논문·저서

- 金元龍, 1973, 『韓國考古學概說』, 一志社
- , 1992, 「原三國時代에 대하여」 『考古學誌』 第11輯,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金 賢, 2000, 「함안 도항리 목관묘 출토 와질토기에 대하여」 『道項里·末山里遺蹟』, 慶南考古學研究所
- 박순발, 2003, 「백제토기 형성기에 보이는 낙랑토기의 영향」 『백제와 낙랑』 2003년도 백제연구 국내학술회의,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 申敬澈, 1980, 「熊川文化期 紀元前上限說再考」 『釜大史學』 第4輯
- , 1982, 「釜山·慶南出土 瓦質系土器」 『韓國考古學報』 12
- , 1991, 「韓國の瓦質土器」 『韓日交渉의 考古學』
- 安在皓, 1994, 「三韓時代 後期 瓦質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 14
- , 2000, 「昌原 茶戶里遺蹟의 編年」 『韓國 古代史와 考古學-鶴山 金廷鶴博士頌壽紀念論叢』, 학연문화사
- , 2000, 「弁·辰韓의木棺墓文化」 『東夷世界の考古學』, 青木書店
- 李盛周, 1988, 「原三國土器 胎土의 類型」 『嶺南考古學』 5
- , 1991, 「原三國時代土器의 類型·系譜·編年·生産體制」 『韓國古代史論叢』 5
- , 1999, 「辰·弁韓地域 墳墓出土 1-4世紀 土器의 編年」 『嶺南考古學』 24, 영남고고학회
- , 2005, 「嶺南地方 原三國時代의 土器」 『원삼국시대 문화의 지역성과 변동』 제29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
- 李在賢, 2002, 「弁·辰韓 土器의 形成과 展開」 『영남지방의 초기철기문화』 제11회 영남고고학회 학술발표회
- 李昌熙, 2006, 「木棺墓 副葬土器의 形式學的 檢討」 『石軒 鄭澄元教授 정년퇴임기념논총』
- 이희준, 2002, 「초기 진·변한에 대한 고고학적 논의」 『진·변한사 연구』, 경상북도·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 , 2004, 「初期鐵器·原三國時代 再論」 『韓國考古學報』 第52輯
- 林孝澤, 1993 「洛東江下流域 土壙木棺墓의 登場과 發展」 『三韓社會와 考古學』, 韓國考古學會
- 鄭仁盛, 1997, 『낙동강 유역권 細形銅劍 文化의 전개』, 慶北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 , 2004a, 「樂浪土城의 「滑石混入系」 土器와 그 年代」 『百濟研究』 第40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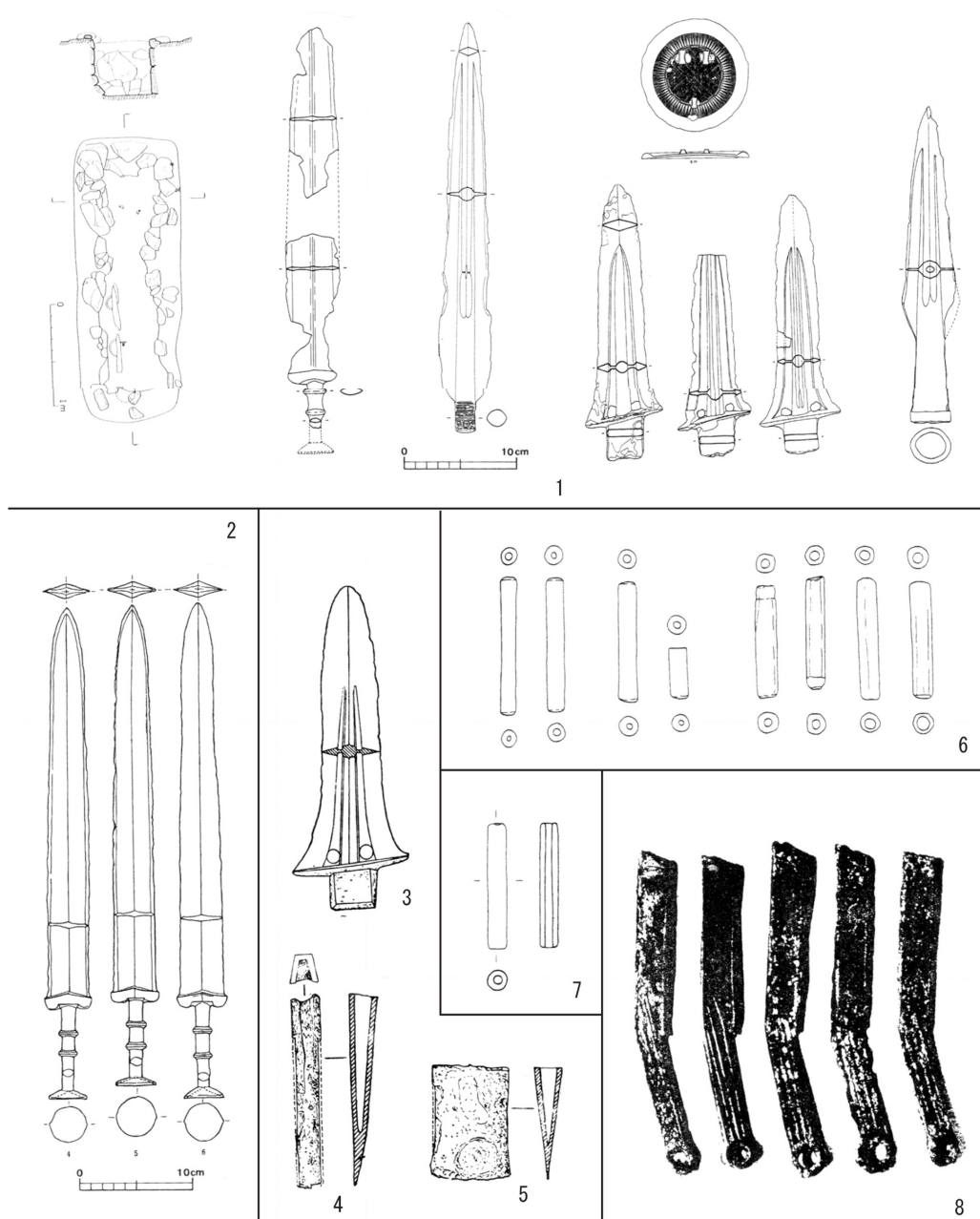
- _____, 2004b, 「樂浪土城의 土器」『韓國古代史研究』34, 韓國古代史學會
- _____, 2006, 「복원실험을 통해 본 樂浪 盆形土器와 평기와의 제작기법」『韓國上古史學報』第53號, 韓國上古史學會
- _____, 2007, 「낙랑 ‘타날문단경호’ 연구」『江原考古學報』제9호, 강원고고학회
- 崔秉鉉, 1998, 「原三國土器의 系統과 性格」『韓國考古學報』38, 韓國考古學會
- _____, 1979, 「慶州 朝陽洞 古墳群 2次 發掘調査 概報」『博物館新聞』100
- _____, 1982, 「陶質土器 成立前夜의 展開」『韓國考古學報』12
- _____, 1994, 「陶質土器의 起源」『考古學誌』第6輯
- _____, 2001, 「談論 瓦質社會」『古代研究』8, 古代研究會

□ 보고서

- 國立昌原文化財研究所, 1997, 『咸安 道項里古墳群 I』
- 慶南考古學研究所, 2006, 『勒島 貝塚 -考察編-』 V
- 慶尙北道文化財研究院, 2005, 『星州 栢田 禮山里 土地區劃整理事業地 區內 文化遺蹟發掘 調査報告書』
- 釜慶大學校博物館, 1998, 『金海 大成洞燒成遺蹟』
- 李健茂 外, 1989, 「義昌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1)」『考古學誌』1,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_____, 1991,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2)」『考古學誌』3,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_____, 1993,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3)」『考古學誌』5,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_____, 1995, 「昌原 茶戶里遺蹟 發掘進展報告(4)」『考古學誌』7, 韓國考古美術研究所
- 嶺南文化財研究院, 2000, 『大邱 八達洞遺蹟 I』
- _____, 2001, 『慶州 舍羅里遺蹟 I』
- 崔夢龍・李清圭 外, 1999, 『慶州 金丈里 無文土器遺蹟』, 서울大學校 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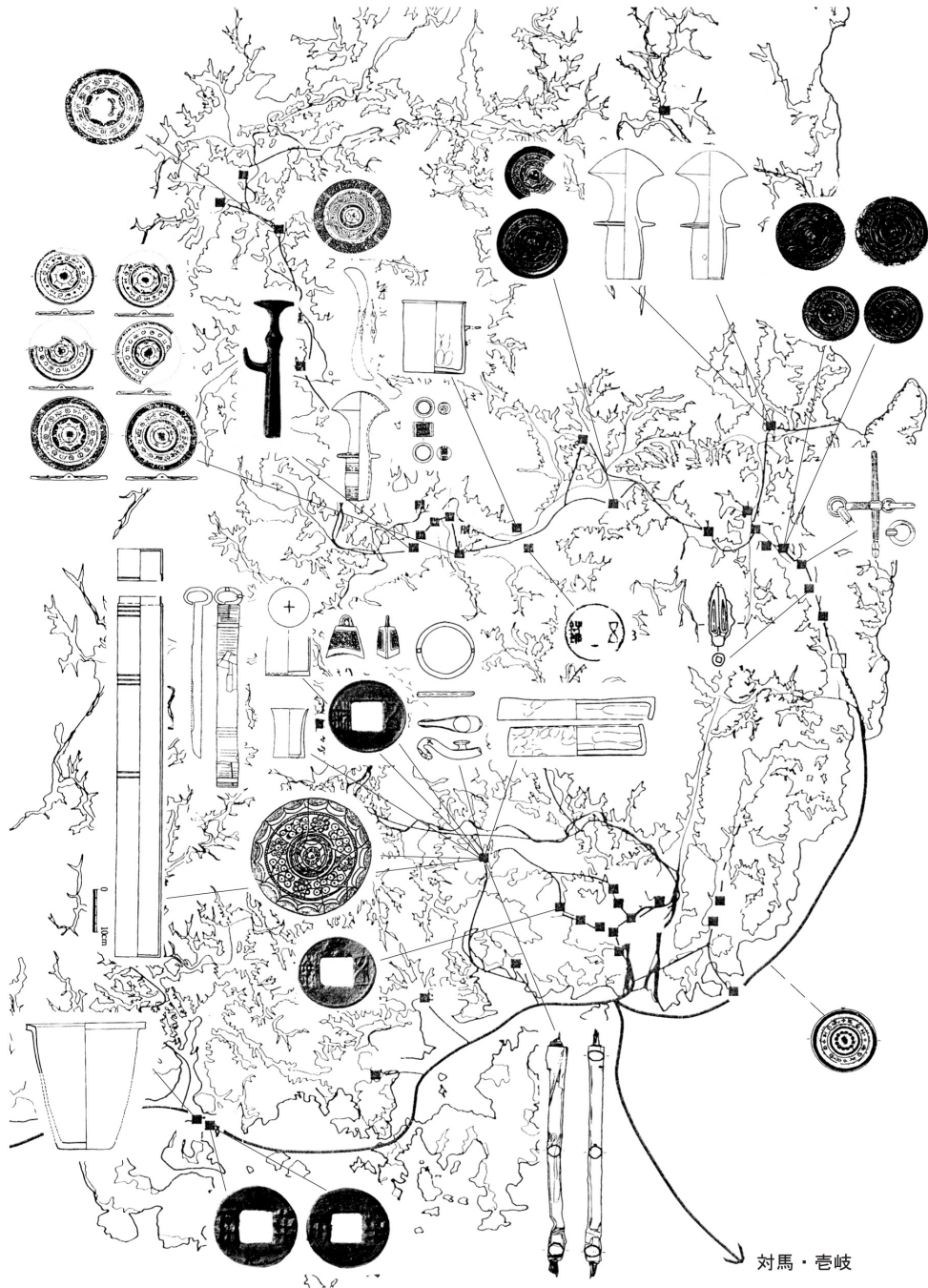
□ 외국자료

- 岡村秀典, 2007, 「中國鏡からみた原三國時代の歷年代」『第19回 東アジア古代史・考古學 研究交流會』, 東アジア考古學會
- 鄭仁盛, 2008, 「牧羊城出土のいわゆる2・3類土器の性格と編年」『遼寧を中心とする東北アジア古代史の再構成』, 大貫靜夫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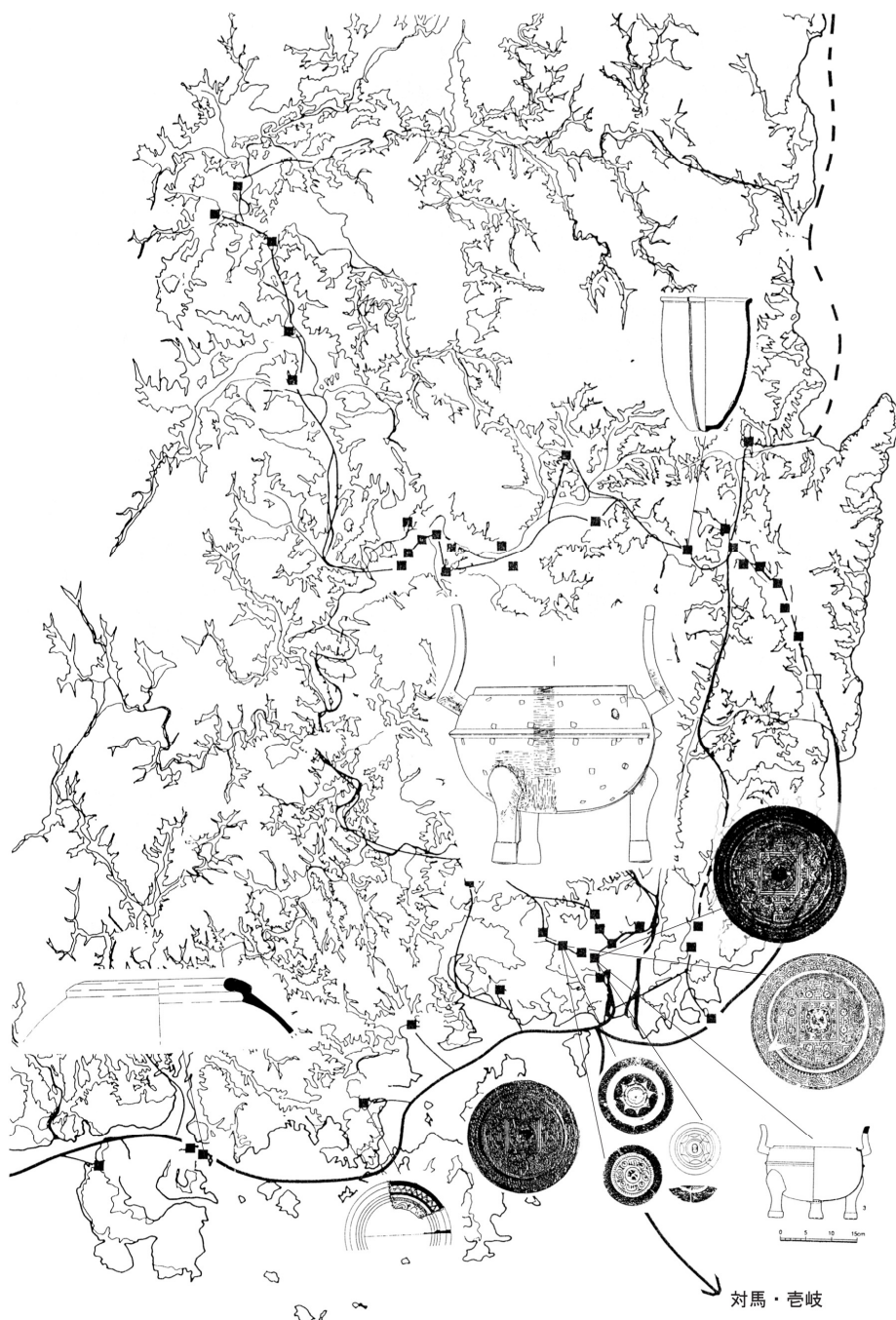
1. 함평 草浦里 2. 傳完州 上林里 3~5. 中國 河北燕下都辛庄頭 30 號墓 6. 扶余 合松里
7. 唐津素素里 8. 傳全羅南道 唐津(務安?)

도면 1. 남부지역의 중국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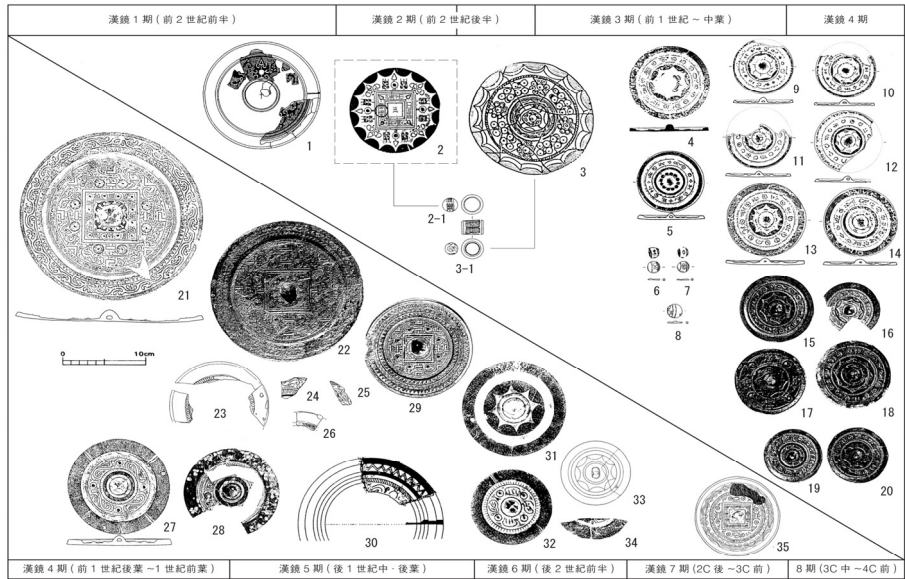
(勒島 출토의 활석혼입계토기는 아직 도면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동일형식의 평양 상리출토 토기를 제시했음)

도면 2. 남부지역 출토 중국계 자료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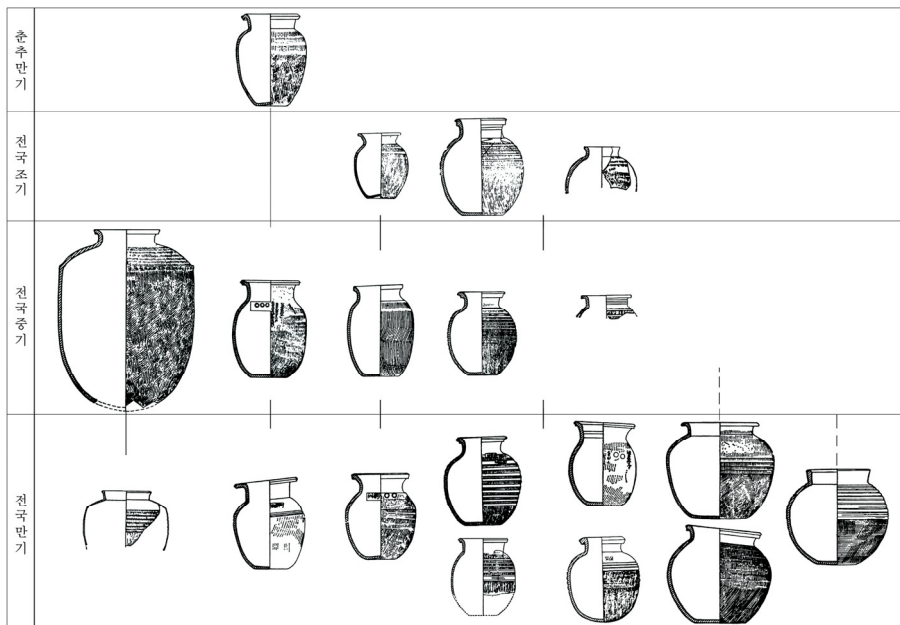
(勒島 출토의 활석혼입계토기는 아직 도면이 없기 때문에 참고로 유사한 형식의 낙랑토성 출토 토기를 제시했음)

도면 3. 남부지역 출토 중국계 자료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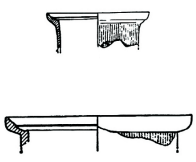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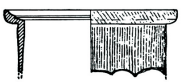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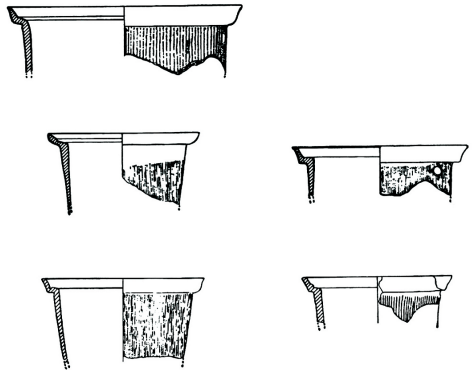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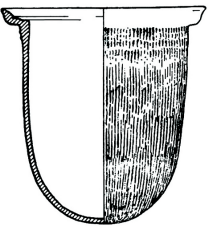



1. 益山平章里 2. 참고자묘 (中國四川省出土) 3. 茶戸里 1 號 2-1 · 3-1. 林堂洞 E-58 號 4. 傳向州 5. 傳金海良洞里 6 · 7. 林堂洞 E-138 號 8. 林堂洞 A-122 號 9-14. 傳大邱池山洞 15 · 16. 永川漁隱洞 17-20. 朝陽洞 38 號 21. 傳金海良洞里 22. 大成洞 23 號 23. 金海良洞里 24 · 25. 金海大成洞 2 號 26. 金海貝塚 27. 大邱 坪里洞 28. 永川漁隱洞 29. 金海內德里 19 號 30. 固城東外洞貝塚 31 · 32. 金海良洞里 162 號 33. 大成洞 14 號 34. 참고자묘 (濟州山池港) 35. 良洞里 441 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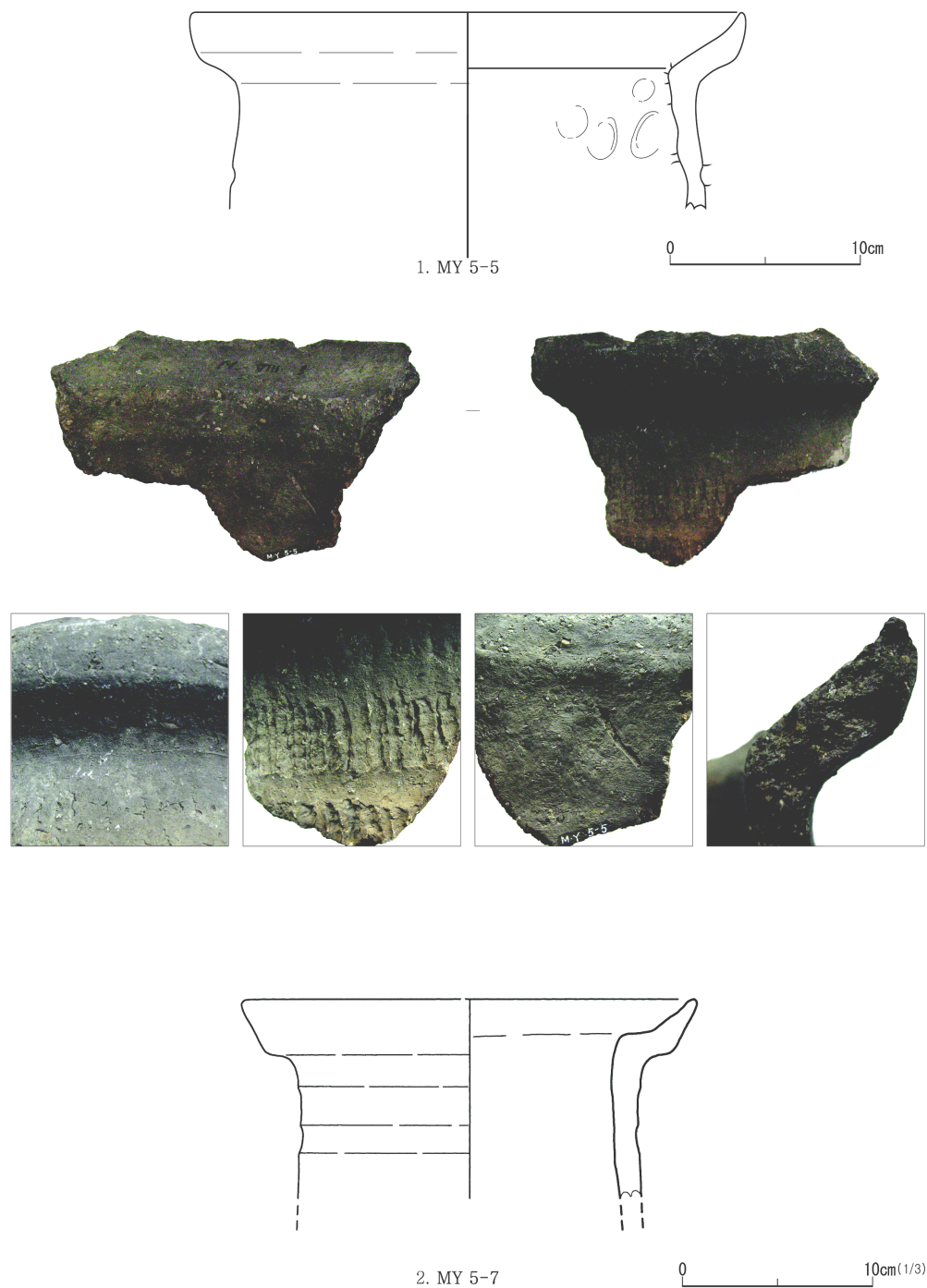
도면 4. 변진한지역에서 출토된 중국경 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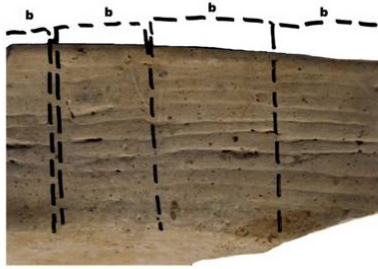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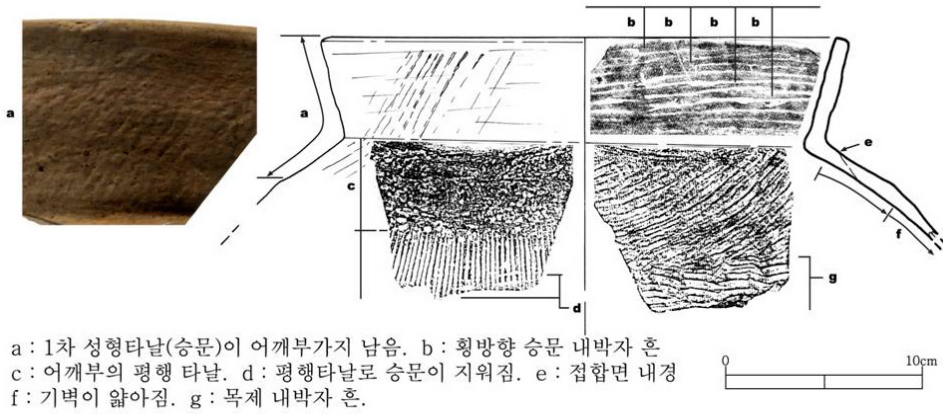
도면 5. 연하도 타날문단경호의 변천

	연식부 BII	연식부 BIII
전국 초기		
전국 중기		
전국 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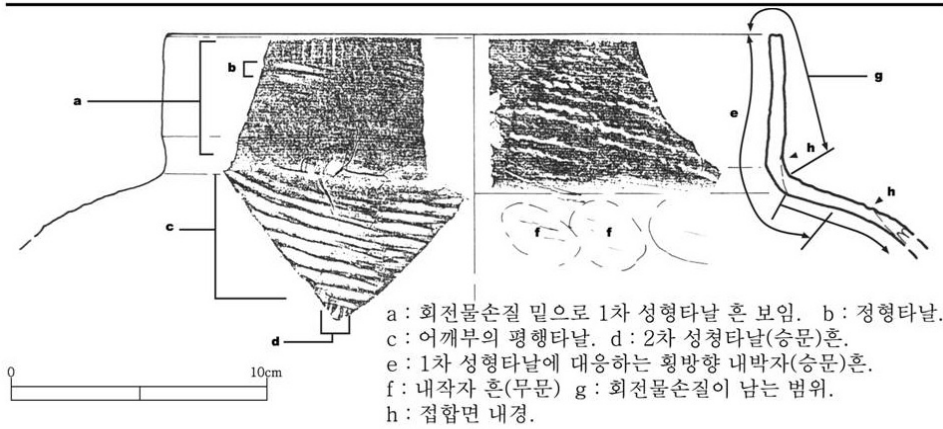
도면 6. 연하도의 연식부



도면 7. 목양성의 변형 연식부 A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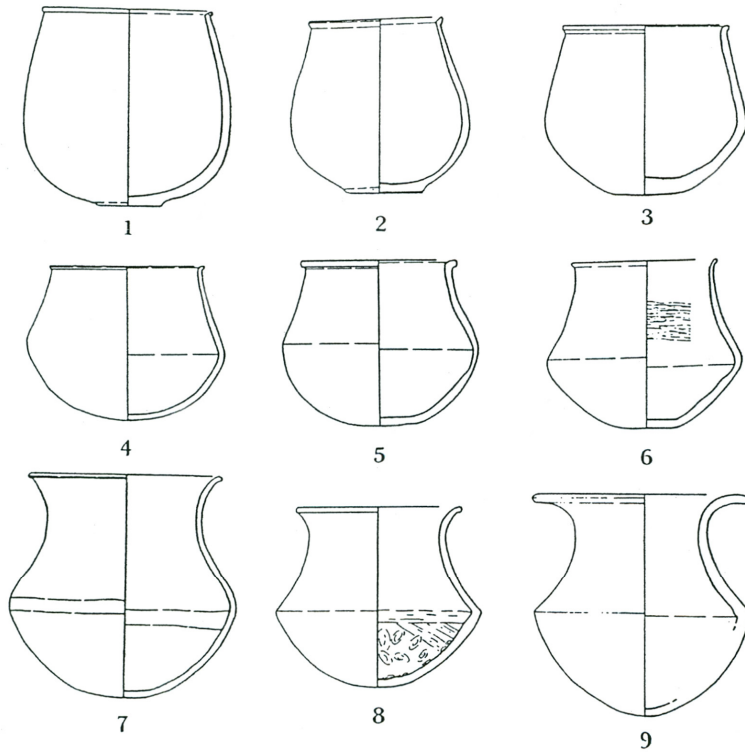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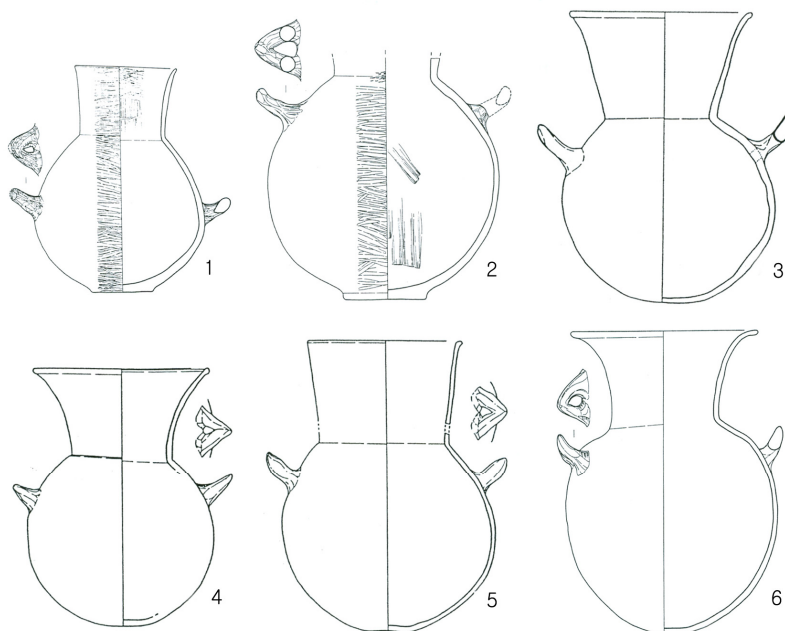
도면 8. 단경호의 제작흔 관찰(1)

	古 ← → 新		
	A	B	C
구연부			
	I	II	III
동체부			
	a	b	c
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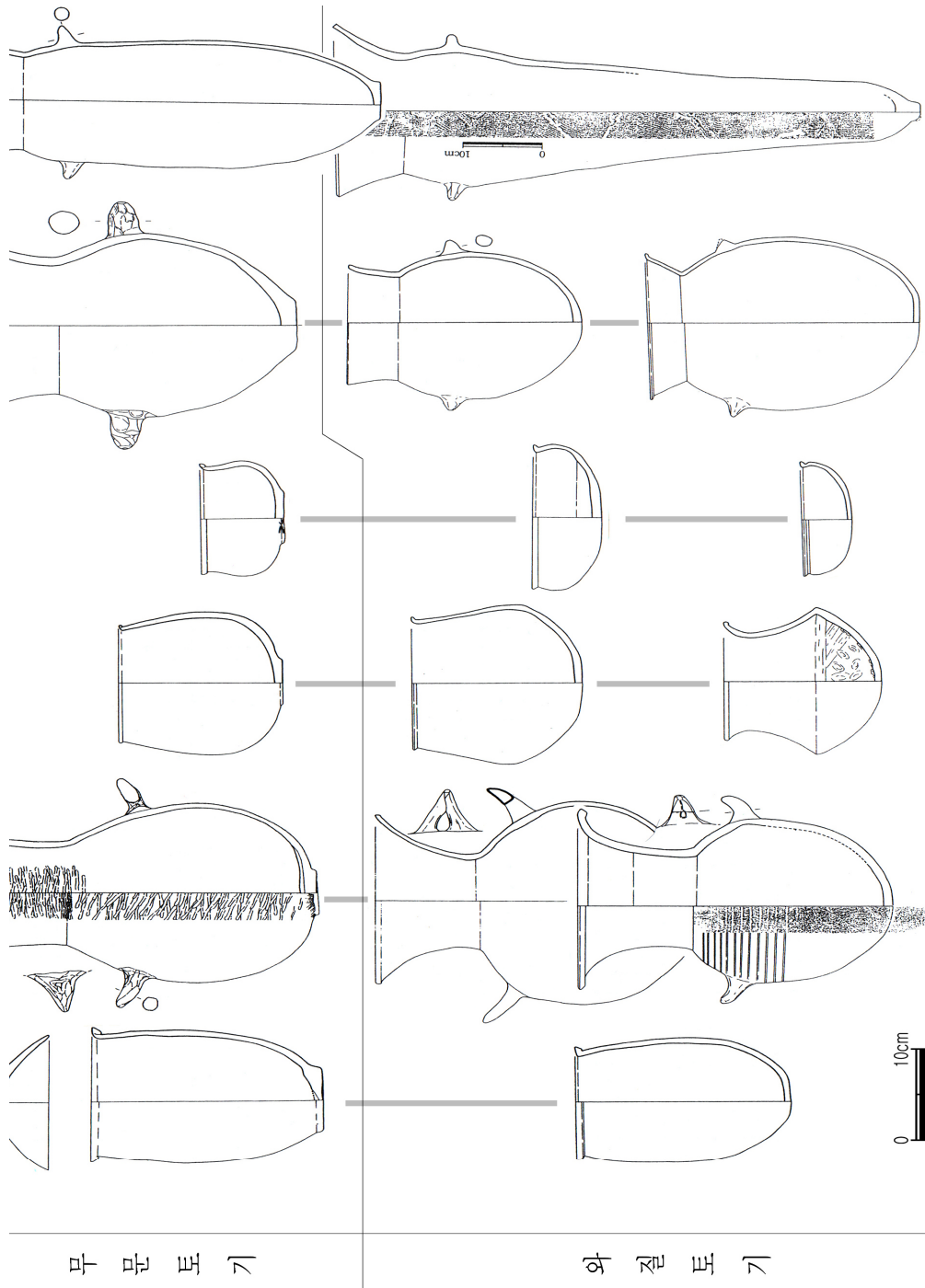


도면 9. 주머니호의 형태 속성과 제형식(정인성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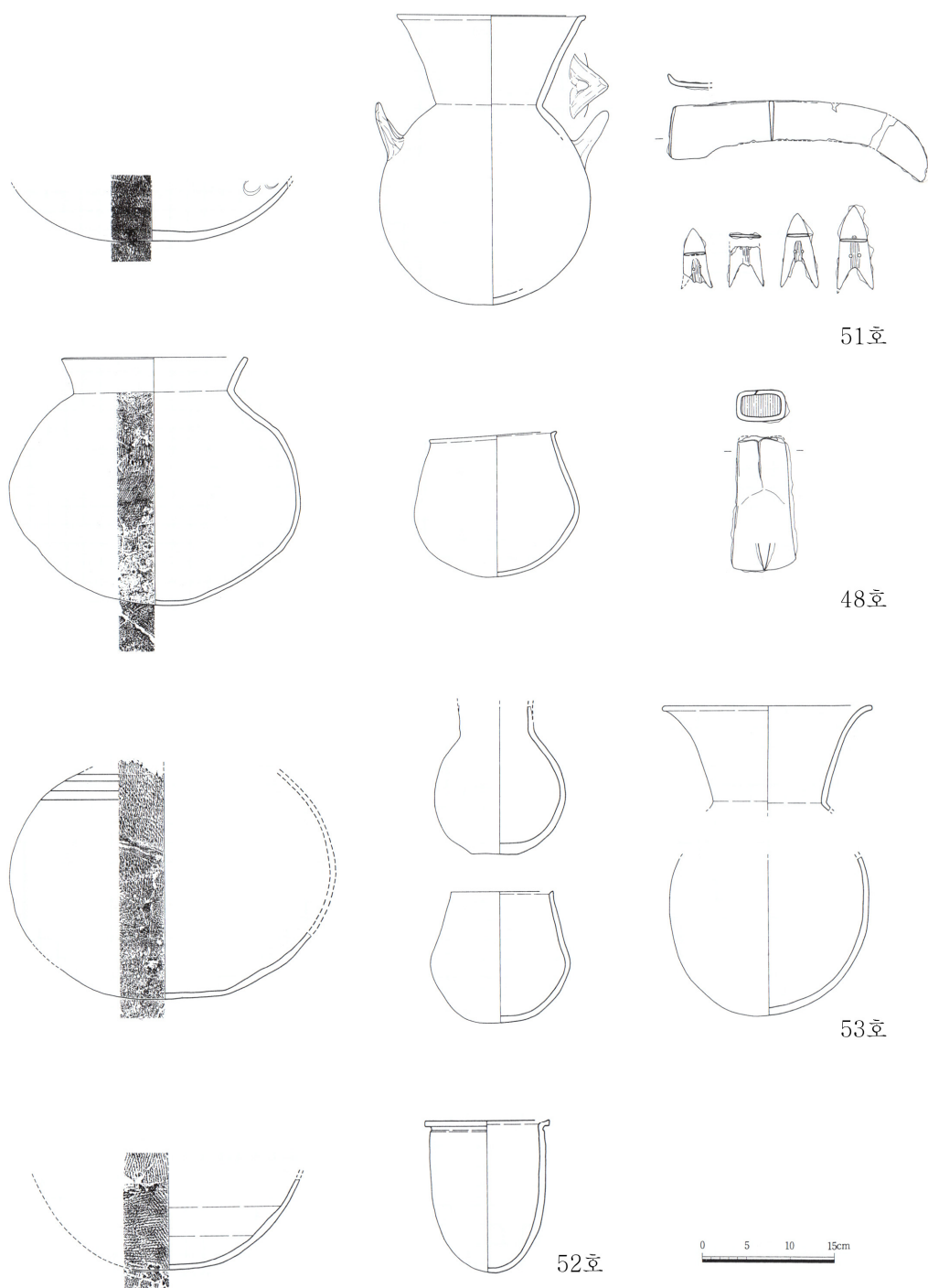
	古 ← → 新		
	A	B	C
구연부			
	I	II	III
동체부			
	a	b	c
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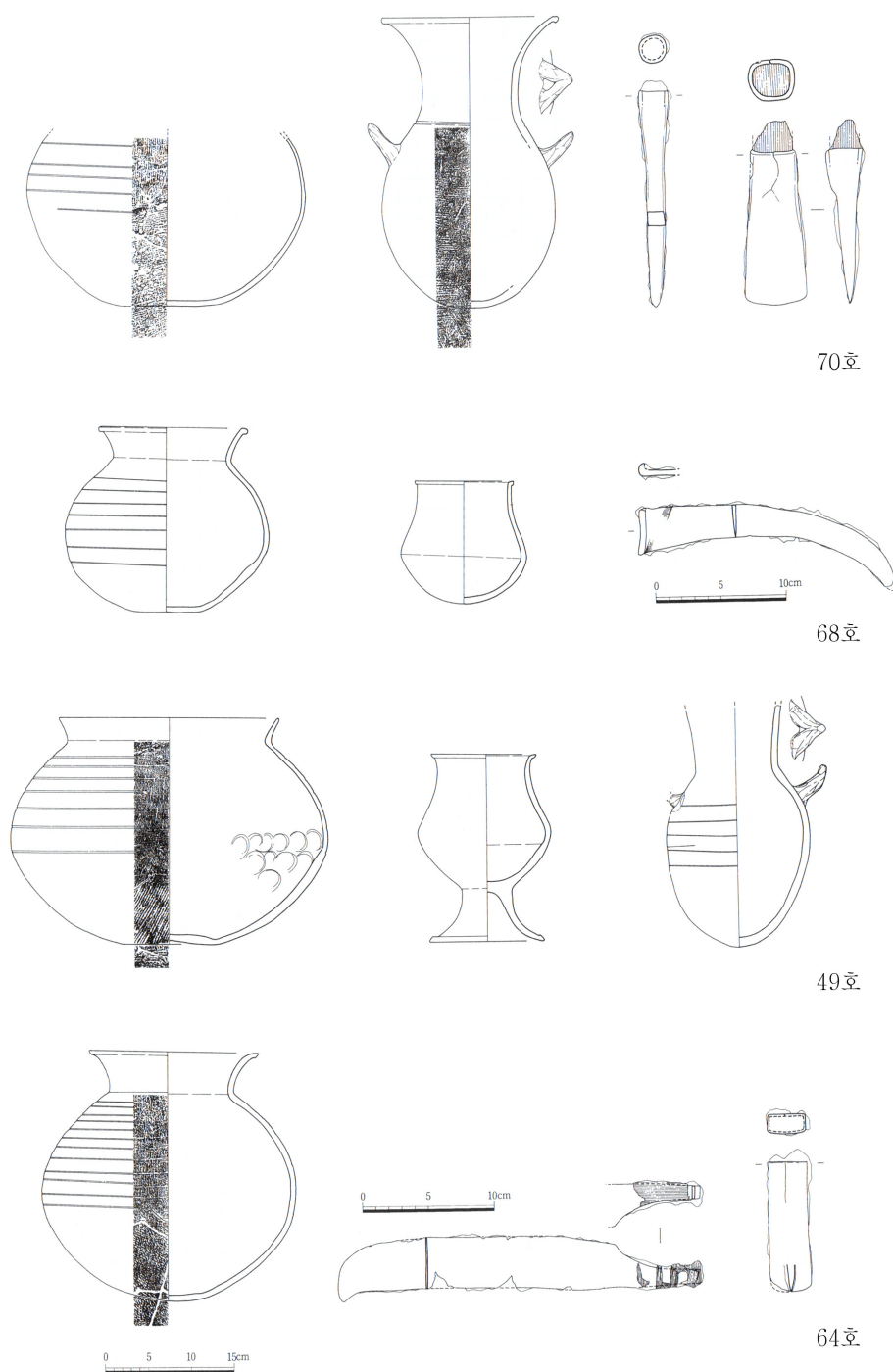
도면 10. 파수부장경호의 형태 속성과 제형식(정인성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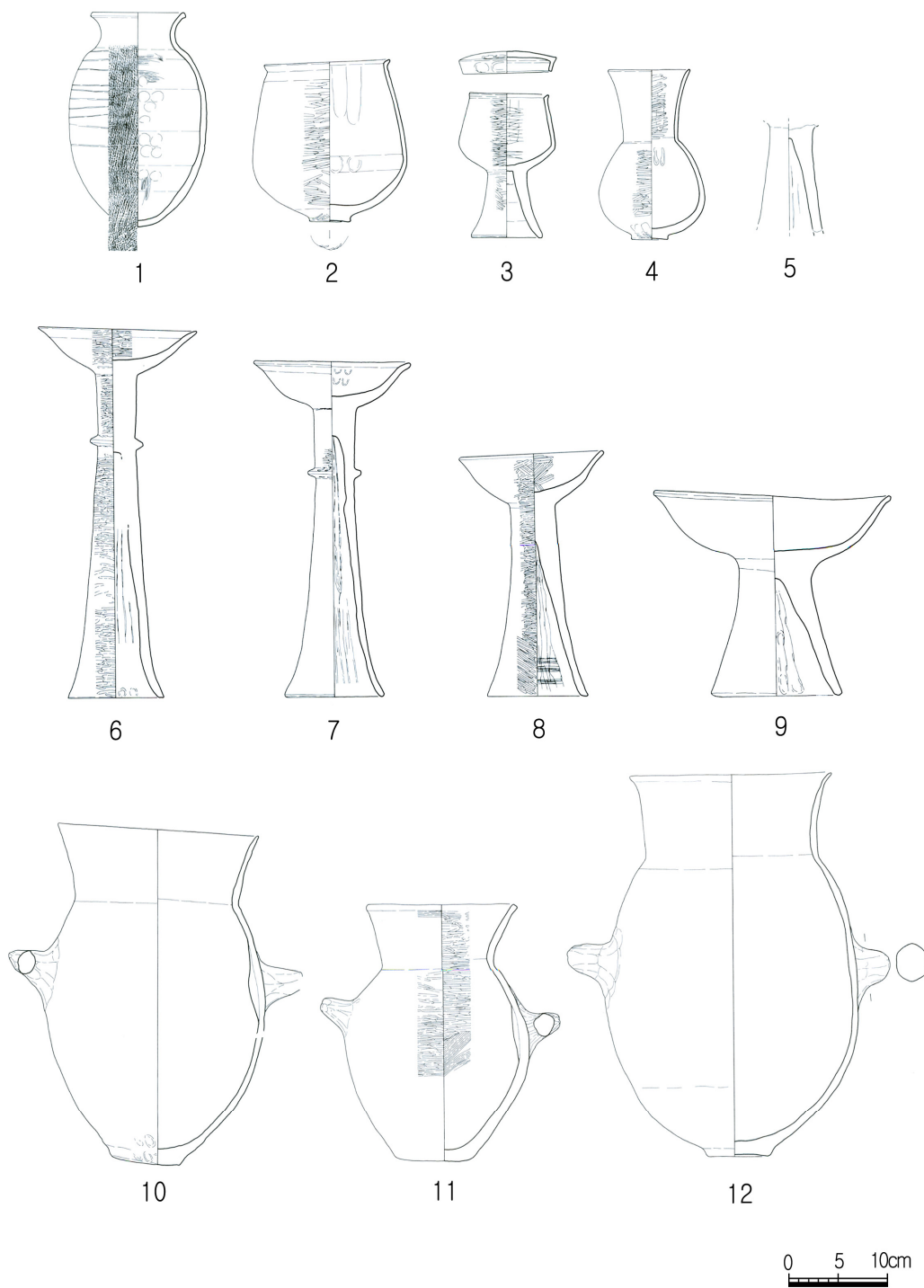
도면 11. 다호리유적 출토 토기의 와질토기화(무문토기 완은 팔달동 90호)



도면 12. 다호리유적 출토 타날문단경호와 공반유물



도면 13. 다호리유적 출토 타날문단경호와 공반유물



도면 14. 성주 예산리 출토 유물